

2016년 7월 1일

투자전략 Daily

• 경제분석

브렉시트 이후 주목할 경기흐름

• 중화권 증시 동향

지표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 확대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한국토지신탁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대상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정유, 휴대폰, 대한항공, 두산중공업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자전략 | 박소연 ☎ 3276-6176

시황분석 | 김대준 ☎ 3276-6247

계량분석 | 안혁 ☎ 3276-6272

파생/ETF | 강승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중국시장 | 최설화 ☎ 3276-6274

경제분석 | 박정우 ☎ 3276-6229

채권분석 | 오창섭 ☎ 3276-6174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6/24(금)	6/27(월)	6/28(화)	6/29(수)	6/30(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25.24	1,926.85	1,936.22	1,956.36	1,970.35	
	등락폭	-61.47	1.61	9.37	20.14	13.99	
	등락종목	상승(상한)	40(0)	420(1)	614(2)	696(1)	495(0)
		하락(하한)	823(0)	400(0)	206(0)	140(0)	297(0)
	ADR	81.80	79.76	85.73	88.61	89.84	
	이격도	10 일	97.76	98.10	98.76	99.85	100.47
		20 일	97.12	97.30	97.85	98.94	99.68
	투자심리	40	50	60	70	80	
	거래량 (백만 주)	729	394	373	451	345	
	거래대금 (십억 원)	8,562	5,176	4,453	4,865	5,004	
코스닥	코스닥지수	647.16	648.12	659.3	669.88	675.09	
	등락폭	-32.36	0.96	11.18	10.58	5.21	
	등락종목	상승(상한)	68(2)	576(5)	962(3)	938(4)	709(6)
		하락(하한)	1,068(0)	495(1)	138(1)	153(1)	358(1)
	ADR	94.77	94.92	96.57	98.13	98.90	
	이격도	10 일	94.69	95.49	97.62	99.55	100.41
		20 일	93.52	93.95	95.80	97.54	98.48
	투자심리	20	30	40	40	50	
	거래량 (백만 주)	1,578	1,008	1,091	927	931	
	거래대금 (십억 원)	6,642	3,791	3,925	4,042	4,22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718.1	1,445.1	780.6	192.4	80.0	170.2	69.3	14.0	254.7	73.5
	매도	2,679.9	1,257.3	1,039.2	484.9	86.4	169.2	40.8	11.9	246.1	40.8
	순매수	38.2	187.8	-258.6	-292.5	-6.4	1.1	28.5	2.1	8.7	32.6
	6월 누계	-1,283.1	572.9	238.8	290.2	-256.7	-263.4	40.4	-147.7	576.1	471.4
	16년 누계	-3,488.9	3,426.7	-1,180.9	-810.1	2,081.9	-1,771.5	-805.0	-687.0	811.1	1,243.0
코스닥	매수	3,923.4	190.0	105.1	24.8	11.9	30.7	12.0	0.9	24.8	15.9
	매도	3,847.7	191.4	162.4	60.6	8.4	42.3	17.3	1.8	32.0	32.9
	순매수	75.7	-1.4	-57.3	-35.8	3.5	-11.7	-5.3	-0.9	-7.1	-16.9
	6월 누계	686.5	0.1	-416.7	-38.4	-12.0	-138.2	-127.6	-6.0	-94.5	-269.9
	16년 누계	3,194.4	215.1	-2,317.3	-281.3	-108.7	-705.2	-427.7	-111.4	-683.2	-1,092.1

브렉시트 이후 주목할 경기흐름

2016년 Target KOSPI	2,250pt
12MF PER	10.19배
12MF PBR	0.93배
Yield Gap	8.5%p

- ▶ 브렉시트에 가려진 경기회복
- ▶ 6월 중국 외환보유액 전월비 소폭 감소 전망
- ▶ 한국, 수출과 내수의 공수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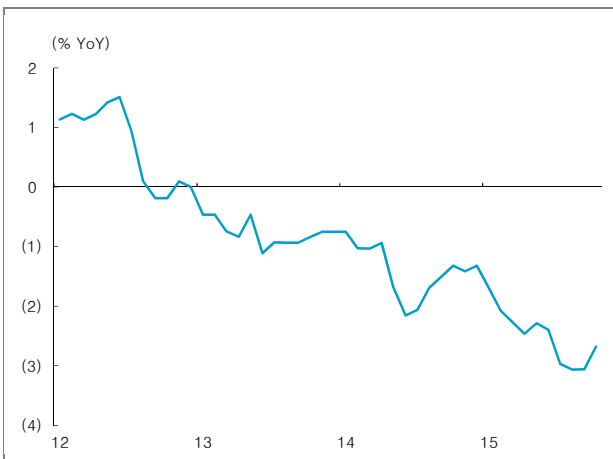
■ 브렉시트에 가려진 경기회복

브렉시트로 소란한 한 주를 보내면서 2분기 글로벌 경기는 막을 내렸다.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앞으로 나타날 경기 흐름은 1) 물가 하락 압력이 멈추고 2) 미국 가계 소비 증가가 이끄는 형태가 될 것이다. 2분기는 이러한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주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인 독일과 중국의 생산자 물가 하락세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수출단가와 미국의 수입물가 역시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가계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있다[그림3]. 2015년 이후 미국 가계가 고용시장 호조에 불구하고 저축률을 높인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저축률이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라면 향후 미국 경제는 생산성의 구조적 하락과 저축률의 구조적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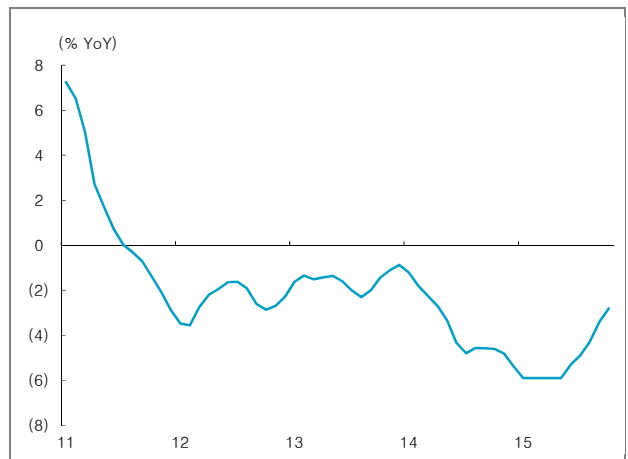
아직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최근 저축률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가계 저축률이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기지 신청건수는 미국 신규주택 착공과 판매 시장 전망을 밝게 해준다[그림4]. 특히 모기지 금리 상승에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모기지 신청건수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독일 생산자 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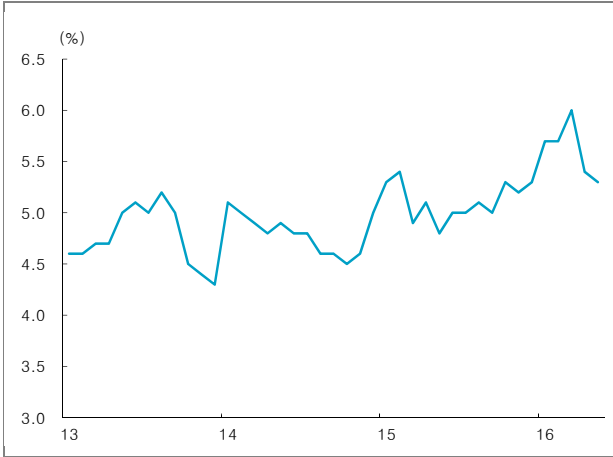
자료: CEIC

[그림 2]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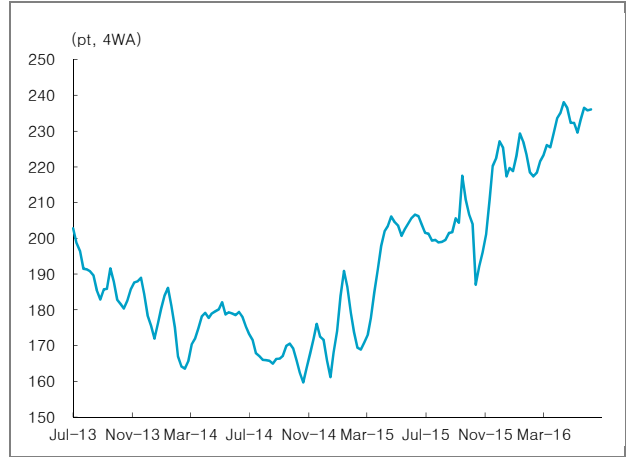
자료: CEIC

[그림 3] 미국 가계 저축률 추이



자료: CEIC

[그림 4] 미국 모기지 신청건수 4주 이동평균



자료: CEIC

따라서 현 시점에서 1) 독일과 중국 생산자 물가 동향은 디플레이션 종료 가능성을 밝게 해주고 2) 미국 가계 저축률 하락 3) 미국 주택시장의 회복세 지속은 경기 흐름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다. 이러한 흐름이 브렉시트라는 돌발상황에 의해 종료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기는 매우 힘들지만 연준의 통화정책이 달러화를 통제하고 있고 ECB를 포함한 기타 중앙은행들이 제한적 형태로 단기자금 시장의 경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국면이 오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분기 경기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1) 디플레이션 종료 2) 수요의 점진적 회복이라는 2가지 흐름이 단기간에 뒤바뀔 이유는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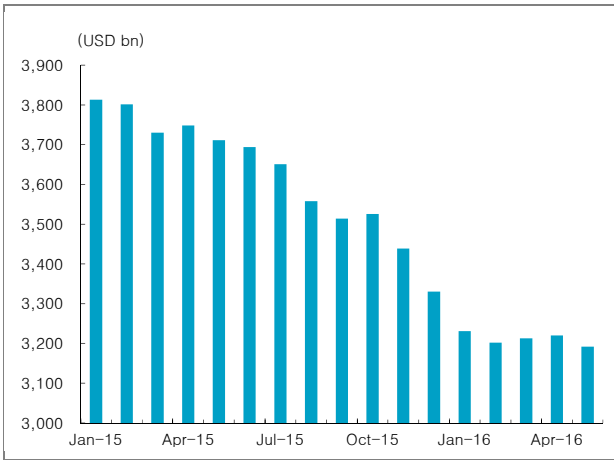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국경제의 안정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특히 올해 상반기 같은 중국 위안화 절하압력이 발생하게 되면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된다. 앞으로 중국 외환보유액 추이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 6월 중국 외환보유액 전월비 소폭 감소

6월 중국 외환보유액은 전월비 200억 달러 감소한 3조 1,700억 달러를 예상한다(시장 예상치 3조 1,550억 달러, 전월 3조 1,917억 달러). 1) 브렉시트로 달러 강세에 따른 기타 통화자산 가치 하락 2) 외환거래량 증가로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자금흐름이 최근 들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급격한 자금유출에 따른 외환보유액의 큰 폭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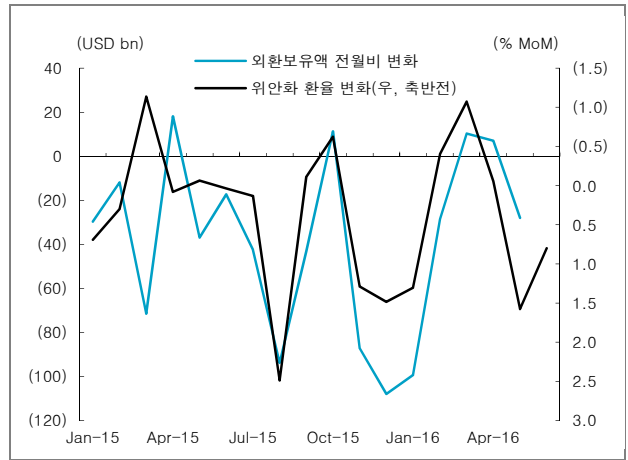
지난 23일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가 가결되며 글로벌 변동성 확대와 함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상승했다. 이를 반영하듯 신흥국 통화 변동성이 확대됐으며 위안화 환율 역시 6월 28일 기준 전월비 1.1% 상승하며 큰 폭의 약세를 기록했다. 따라서 중국 외환보유고 중 달러 외 자산 비중을 40%로 가정했을 때 달러화 강세로 발생하는 기타통화 평가절하 규모가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과거 추이를 보면 위안화 환율과 외환보유액 변화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상관계수 - 0.62)를 보이고 있어 6월 위안화 절하로 인한 외환보유액 감소는 불가피 할 전망이다.

[그림 5] 중국 외환보유액 추이



자료: CEIC

[그림 6] 외환보유액 전월비 변화와 위안화 환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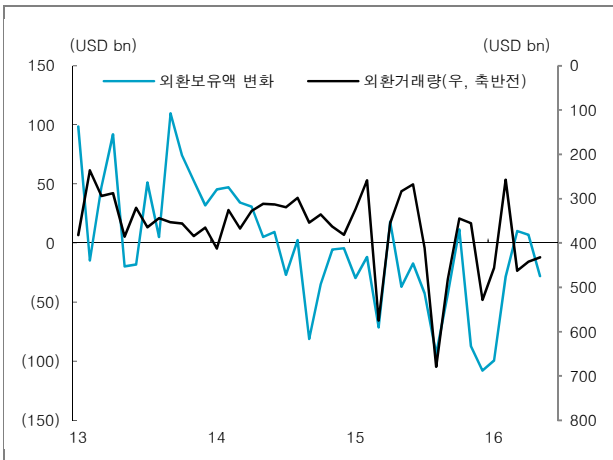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2월 2,575억 달러 수준까지 하락한 외환거래량이 최근 3개월 연속 4,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보유고가 급감한 2015년 월 평균 외환거래량인 4,862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외환거래량으로 정책당국의 시장개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반영하듯 인민은행의 외화자산 잔액이 역시 연초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물론 2015년 12월 7,082억 위안이 감소한 이후 감소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위안화 가치 안정화를 위해 외환보유액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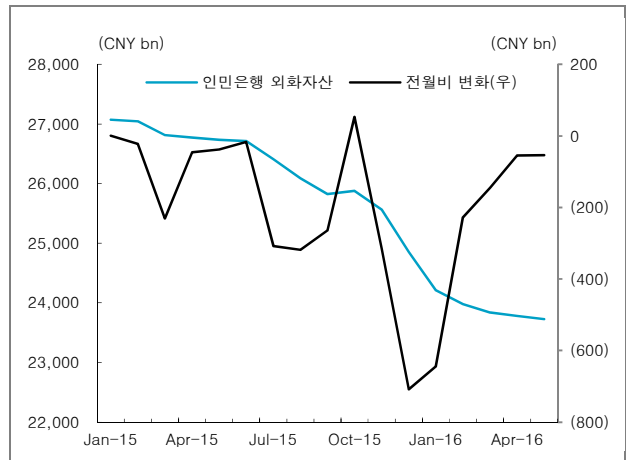
그러나 2015년과 같은 급격한 외환보유액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5월 한 달 간 이어진 위안화 약세 흐름이 6월들어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며 최근 위안화 약세는 브렉시트 이후 나타난 단기적 요인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펀드 플로우를 통한 선진국에서 중국으로의 자금 유출입은 5월 -24억 달러에서 6월 +0.6억 달러로 플러스 전환했다. 특히 브렉시트로 인해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크게 후퇴하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중국 외환보유액 전월비 변화 및 외환거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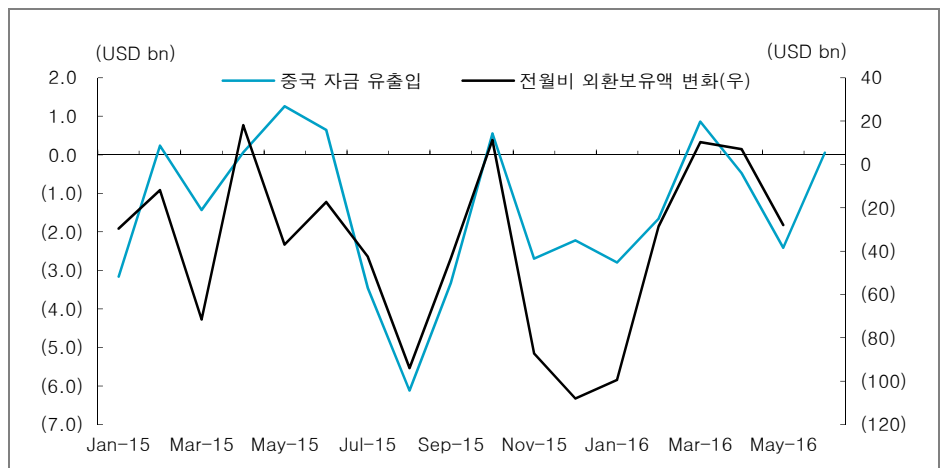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인민은행 외화자산 잔액 및 전월비 변화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중국 자금 유출입 및 외환보유액 변화 추이



자료: EPFR, CEIC,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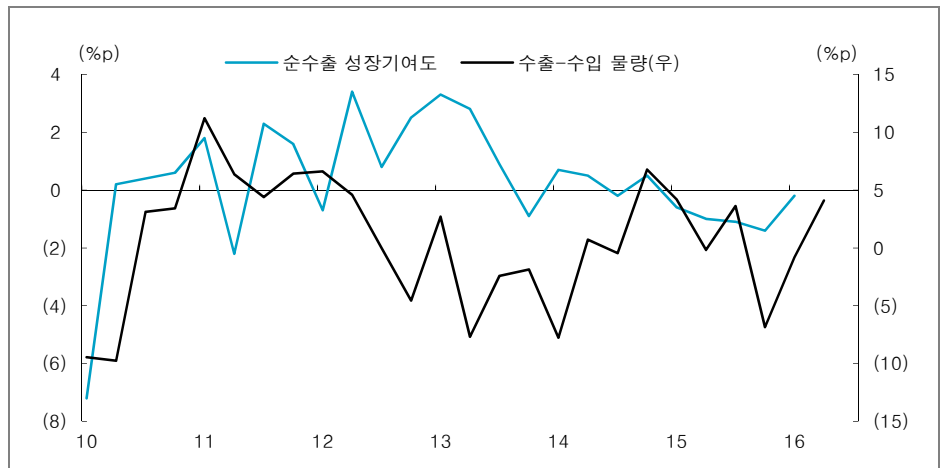
■ 한국, 수출과 내수의 공수교대

브렉시트로 인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막 회복이 시작되는 한국의 수출이다. 그동안 글로벌 경제에 가해진 디플레이션 충격과 수요부진이라는 이중고는 한국경제 수출에 큰 타격을 입혔다.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를 이끌어 낸 긍정적 충격이었지만 한편 정책대응의 한계를 노출하면서 원화 가치를 안정화시키는데 실패했다. 이것은 고스란히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내수에 의존해야 했고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내수주도 성장은 금리인하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지난 2013년 이후 한국은행은 금리를 1.25%까지 인하하고 정부는 연이어 추경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다. 내수로 경기를 방어하는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경기의 역동성은 많이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확인된 글로벌 경기흐름은 한국의 수출과 내수에도 반전을 주고 있다. 현재 5월까지 확인된 수출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분기에도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10]. 지난 1분기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2.8%p(전분기 4.6%p),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0.2%p(전분기 -1.4%p)를 기록했는데 2분기에는 순수출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그렇다면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감소했는데 올해 처음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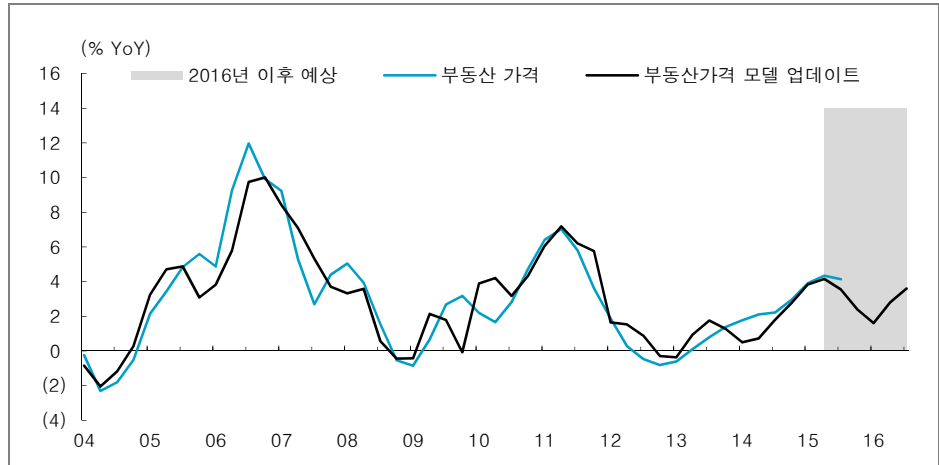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경기 하강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또 다른 우려사항이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부동산 경기 전반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격 상승 흐름이 꺾인다는 것은 초기에 어떤 형태로든 심리적 충격을 주기 마련이다[그림11].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 혹은 시장이 급냉하는 형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반기 수출경기가 회복될수록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더욱 냉정해질 수 밖에 없다. 하반기 내수와 수출의 공수교대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률 공백에 브렉시트로 촉발된 외부 변수는 3분기 경기 흐름을 매우 어지럽게 만드는 요인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희망과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수출과 수입물량의 차이와 순수출 성장 기여도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한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3분기까지 하락세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표 1> 다음 주 주요 경제지표

날짜	이벤트	예상치	발표치	이전치
07/04	유로존 7월 섉틱스 투자자기대지수			9.9
07/04	유로존 5월 생산자물가 MoM			-0.3%
07/05	유로존 5월 소매판매 MoM			0.0%
07/05	한국 6월 외환보유액 USD bn			370.9
07/05	일본 6월 마켓 서비스업 PMI			50.4
07/05	일본 6월 마켓 종합 PMI			49.2
07/05	미국 5월 제조업수주 MoM	-0.8%		1.9%
07/06	미국 6월 ISM 비제조업지수	53.5		52.9
07/07	미국 6월 FOMC 의사록 공개			
07/07	미국 6월 ADP 취업자 변동 (천 명)	150		173
07/07	중국 6월 외환보유고 USD bn	3,155.0		3,191.7
07/08	미국 6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180		38.0
07/08	일본 5월 경상수지 JPY bn			1,878.5

주: 한국시각 기준

자료: Bloomberg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지표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 확대

- ▶ 상해종합지수 0.1% 하락, 지표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확대
- ▶ 홍콩H지수는 1.7% 상승, 해외증시의 강세와 최근 낙폭에 대한 저가매수세 유입에 강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약보합,
조선, 귀금속, 보석/주얼리
등의 업종 약세

상해종합지수가 0.1% 하락한 2,930p로 마감했다. 강보합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등락을 보이다 결국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거래대금은 1,875억위안으로 직전일 대비 359억위안 줄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과 국제 원유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 약재로 작용했다. 또한 7월 1일에 있을 통계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다. 다만 인민은행이 이틀 연속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내리면서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인 점이 호재로 작용하며 지수의 하락폭을 제한했다. 업종별로는 조선, 귀금속, 금융, 보석/주얼리, 비철금속, 운송 등이 하락했다. 차스닥 지수는 0.8% 상승한 2,228p로 마감했다. 7월 1일은 홍콩특별행정구 수립기념일로 홍콩시장이 휴장 예정임에 따라 후구통 거래는 6월 30일, 7월 1일 거래가 중단됐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1.7% 상승,
헬스케어, 에너지, 소재, 유
틸리티 등의 업종 강세

홍콩H지수는 1.7% 상승한 8,713p로 마감했다. 강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직전일 해외증시의 강세와 최근 낙폭에 대한 저가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또한 역내외 위안화 환율 스프레드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이 투자심리를 개선시켰다. 한편 지표발표와 휴장을 앞두고 리스크 회피심리가 확대되면서 매도물량이 일부 출회했으나 증시에 미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헬스케어, 에너지, 소재, 유틸리티, 산업재 등 모든 업종이 동반 상승했다. 홍콩증시는 홍콩특별행정구 수립기념일 맞아 7월 1일 휴장 후 4일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6/30(목)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2,929.61	-0.07	1.30	0.45	-17.22
심천종합	1,974.24	0.05	3.08	5.44	-14.49
차스닥	2,227.79	0.81	4.22	3.15	-17.92
홍콩H	8,712.89	1.65	-0.82	0.09	-9.81
Shibor 7일물 금리(% , %p)	2.39	-0.04	0.59	2.19	1.27
Shibor 1개월 금리(% , %p)	2.89	-0.10	0.06	1.44	-3.83
중국국채 3년물(% , %p)	2.54	-0.35	-1.69	-0.86	-1.22
위안/달러 고시환율	6.6312	-0.02	0.81	0.80	2.12
역내 위안/달러	6.6460	-0.14	-0.98	-0.91	-2.29
역외 위안/달러	6.6667	-0.18	-1.21	-1.20	-1.47

주: 30일 오후 6시 10분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브렉시트 충격 완화에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며 국내 증시도 나흘 연속 상승세

- 브렉시트 충격이 완화되며 미국증시가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간 가운데 1,970P선을 웃돌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개인 매수세로 장중 내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이견회회장 사망설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1,970P선 회복에 성공.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에어쿠션 퍼프 매출이 하반기 본격화돼 이에 따른 성장 기대감에 덕성이 급등했으며, 국내에서 최초로 alnr 시장에 레이싱 드론을 수출한다는 소식에 이에스브이가 강세를 보임. 식약처가 진행중인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독성 시험에서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히며 내츨렐엔도텍이 초강세를 보였으며,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의 수혜주로 부각된 나노도 초강세를 보임. 또한, 삼성전자가 제이씨씨와 제주 신라호텔에서 제주 최대 규모의 스마트 복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에스넷을 비롯해 사물인터넷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보호예수 해제 물량 부담에 코데즈컴바인이 나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중국 자동차 부품업체인 로스웰은 신규 상장 첫날 공모가를 웃도는 시초가를 형성했으나 차익실현 매물로 급락세

종목/이슈	내 용
덕성(004830) ▶12,300(+10.81%)	에어쿠션 퍼프 매출 증가 기대감에 초강세 - 에어쿠션 화장품이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퍼프 매출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돼 큰 폭의 이익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급등세 - 아울러, 2017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한 PER은 9.5배 수준으로 화장품업체가 받는 프리미엄이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로 현 주가는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도 긍정적으로 작용
이에스브이(223310) ▶12,550(+7.26%)	국내 최초 레이싱 드론 미국 수출 소식에 급등세 - 국내 업체 최초로 미국 유통업체와 신제품 레이싱 드론 '플라이드림 에프쓰리(FlyDream F3)'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세 - 이번 계약으로 오는 2017년 6월까지 매월 1000대의 레이싱 드론을 납품할 예정이며, 향후 미국 시장 확대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
바이오 관련주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급성장 분석에 강세 -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마켓이 오는 2024년에 이르면 총 417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 - 진양제약(007370, 상한가), 알테오젠(196170, +15.22%), 바이넥스(053030, +12.97%), 레고켈바이오(141080, +8.58%), 화일약품(061250, +6.84%), 바이오랜드(052260, +4.85%)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KT&G(033780) ▶136,500(+5.00%)	- 건조한 담배 수요 및 인삼공사 호실적에 따른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큐리언트(115180) ▶56,100(+4.66%)	- 상업화에 근접한 파이프라인을 2개 보유하고 있으며, 혁신 신약으로서 조기 기술이전이 가능한 신약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 등 리스크는 적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에 신고가 경신
삼강엠앤티(100090) ▶10,200(상한가)	- 이란 기업과 10억달러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본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한국토지신탁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한국토지신탁 (034830)	3,730 (-5.8)	3,915 (0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금리 고착화로 신탁사의 사업구조, 안정적인 수익성 등이 재조명되며 투자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 - 2015년 수주잔고(1,700억)가 급증하여 2018년까지 안정된 성장을 이어갈 것 - 신탁사의 정비사업 진출 허용으로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전망
한국항공우주 (047810)	73,200 (+5.8)	69,200 (0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초 25%에 달했던 오버행 물량은 현재 11%로 축소되었고, 남은 물량 중 한화테크윈 지분 6%는 시장 출회 가능성이 낮음. 오버행 리스크가 크게 완화되어 주가 상승 제한 요인 해소 - 국내 수리온헬기 3차 양산과 상륙기동헬기 등 약 3조원의 수주가 예정되어 있고, 태국 등 다수의 국가와 T-50시리즈 수출 협상을 진행하는 등 하반기로 갈수록 대형 수주 모멘텀이 강화될 전망
블루콤 (033560)	15,800 (-3.1)	16,300 (06/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품보다 1.5배 이상 판매가가 높은 프리미엄 블루투스 헤드셋(톤플러스 HBS-1100)출시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LG전자의 높은 인지도와 음질 및 디자인 등의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가 시장에서 확고한 자리 매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정상제이엘에스 (040420)	6,480 (-2.6)	6,650 (0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amel Tree' 콘텐츠를 미국, 중국, 이란, 이집트 등지에 수출하고, 미국의 세계적 출판 유통기업인 IPG사와 스토리북 배분 계약을 맺는 등 콘텐츠 경쟁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 - 학령인구 감소세 둔화로 교육시장 안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영어학원의 과점화에 따른 수혜 예상. 또한 시가배당률 6%를 상회하는 배당매력을 겸비
아비코전자 (036010)	6,330 (-2.2)	6,470 (0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시그널인덕터는 고객사의 중저가폰 내 채용 모델 확대 지속,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에 따른 NFC용 매출 확대 등으로 고객사 내 안정적 점유율 지속 가능 - 노트북, PC용 DDR4 칩 저항기 매출 성장 및 자동차용 텔레매틱스 매출 확대에 대한 의존도 축소 - 16년 1분기 매출액 210억원(+33.7% YoY), 영업이익 23억원(+42.7% YoY)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연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실적 이어갈 전망
디지털대성 (068930)	3,350 (+5.7)	3,170 (0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래 업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과 M&A를 통한 성장 추세 전망. 2015년에도 논술 1위 기업 한우리 인수를 통한 성장 동력 강화 - 오프라인 및 프랜차이즈 학원, 온라인 부문 등으로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배당정책 지속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한국항공우주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통성 공금지(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대상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6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대상 (001680)	27,450 (-6.5)	29,350 (06/22)	2,946	131	82	2,288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신부문이 빠른 공정 효율화 작업으로 수익성 개선되고 있고 하반기 베스트코의 실적 회복 기대 -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식품부문의 영업이익률 향상 전망. 내년 초 공장이 완공되는 인도네시아의 전분/전분당 사업추가로 갈수록 실적 개선 폭 커질 전망 - 올해 예상 PER 12.3배로 업종 평균 21.0배 보다 크게 낮아 밸류에이션 매력 상존 				
삼광글라스 (005090)	83,300 (-7.6)	90,200 (05/31)	327	21	40	8,163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홈쇼핑을 중심으로 꾸준히 인지도가 향상되었으며 홈쇼핑 채널 및 온라인몰 계약으로 판매채널 다각화에 성공. 올해는 로컬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 중심의 성장으로 실적 호전 전망 - 군장에너지 중 발전용량이 가장 큰 규모의 GE4(250MW)기가 5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2분기부터 군장에너지의 실적 회복 기대 				
LG생활건강 (051900)	1,117,000 (+6.7)	1,047,000 (05/10)	6,148	862	627	36,896	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 성수기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따른 면세점 매출 증가가 예상되며, 전년도 메르스 기저효과 및 일본 후쿠오카 지진에 따른 반사이익 등으로 2분기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고가 브랜드인 '후'에 이어 'SU:M'의 가파른 성장세가 확인. 상반기 내 중국에서 'SU:M'의 런칭이 예정되어 있어 브랜드 확대 효과 기대 				
SK머티리얼즈 (036490)	122,800 (-1.0)	124,000 (04/25)	462	169	120	11,433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그룹에 편입되면서 전반적인 대외신인도 향상 및 시너지 효과 기대. 반도체 사업은 SK그룹의 핵심 육성 사업으로 수직계열화 측면에서 SK머티리얼즈의 전략적 가치 부각 - 반도체 업체들의 지속적인 미세공정 전환과 3D NAND 투자 확대 수혜. 국내 및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들의 공격적인 플렉서블OLED라인 및 대형 OLED투자로 중장기적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 				
한섬 (020000)	39,300 (-2.6)	40,350 (04/22)	710	84	69	3,132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및 신규 브랜드 도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현대백화점의 신규 출점 효과 등에 힘입어 외형 확대와 이익 개선세 가시화 -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온라인, 홈쇼핑 등 판매 채널 확장으로 추가 성장여력 제고 예상 -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저평가 상태 				
유한양행 (000100)	306,000 (+10.5)	277,000 (03/28)	1,247	72	116	11,337	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효과와 함께 전문의약품 성장과 원료의약품 수출 증가로 양호한 1분기 실적 예상 - 유한화학(지분 100%)과 유한김벌리(지분 30%)의 이익 턴어라운드 본격화 예상 - 신약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R&D 아웃소싱을 통한 성장 잠재력 강화와 지분가치 부각 가능성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생활건강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정유: 다가오는 호재들에 주목

■ 낮아진 multiple

S-Oil과 SK이노베이션 목표주가를 17%, 8% 낮춰 100,000원과 230,000원으로 하향한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동종 업체 multiple 수준을 반영했다. 국내 정유사들의 목표 PBR은 동종업체 ROE-PBR 회귀분석으로 산출했고, 매크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밸류에이션 multiple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동일 ROE 기준 적정 PBR이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해, SK이노베이션의 목표 PBR을 1.3배에서 1.2배로, S-Oil의 목표 PBR을 2.1배에서 1.8배로 하향한다. 그러나 정유 3사에 대한 매수 의견은 유지한다. 약재는 모두 주가에 반영됐고, 다가오는 7월부터 긍정적 요인들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유 3사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현 시점에서 매수를 추천한다.

■ 긍정적 요인들 재부상 할 것

매크로 불확실성은 커진 상황이나, 다가오는 긍정적 이벤트에 주목할 때다. 현 주가는 최악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근시일 내 호재들이 나타날 전망이다. 첫 째, 7월 발표가 예상되는 2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가시화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S-Oil의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각각 36%와 29%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유가가 안정화되거나 하락할 경우 spot 정제마진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유가가 빠르게 반등하며, 정유사들이 축적한 저가원료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가동률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선을 뚫고 또다시 급등하지 않는다면, 6월 말 혹은 7월까지 저가 원유 재고가 소진되며 가동률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16년 국내 정유사들의 배당은 작년 대비 상승하거나 최소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상반기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개선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작년 하반기 실적 기저효과 또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접어들며 국내 정유사들의 배당 매력은 높아질 전망이다.

■ 지금이 매수 타이밍

현 정유주 주가가 이미 최악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시 한번 긍정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 국내 정유 3사의 주당 배당금이 작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배당수익률은 3%에 달하는 가운데, PBR은 역사적 저점 구간이다. 펀더멘털 관점에서 볼 때, 브렉시트와 같은 매크로 이벤트가 가져올 주요 리스크는 유가 하락이다. 그러나 이는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할 뿐 아니라, 국내 정유3사 외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유사들의 가동률 하락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즉, 이러한 상황 하에서 spot 정제마진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석유수요는 비탄력적이며, worst scenario 하에서도 유가 하락은 정유제품 수요감소를 경감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향후 1)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2) spot 정제마진 회복, 3) 견조한 배당수익률과 같은 긍정적 요인들에 주목할 때다. 국내 정유 3사에 대한 매수를 추천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6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휴대폰: 삼성전자 휴대폰은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나타낼 전망

■ 2Q16에 삼성전자 IM부문 실적 호조는 마케팅비용의 효율화에 초점

2Q16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은 당초에 예상한 4.2조원의 영업이익을 충분히 달성할 전망이다. 갤럭시S7의 견조한 판매(그 중에서도 엡지모델의 판매비중이 50%를 상회, 그림5), J시리즈의 꾸준한 인기 등의 요인도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케팅비용의 효율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된다. 즉 아이폰 등 다른 경쟁모델들의 판매부진과 삼성전자의 합리적 전략선택 등에 따라 신규모델 출시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마케팅비용의 지출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이폰7의 출시가 9월말에 나타날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마케팅비용 효율화는 3Q16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4).

■ 노트7의 경우 엡지모델만 출시하는 것도 합리적 전략으로 판단

8월에 출시될 갤럭시노트7은 예년과 달리 엡지모델만 출시할 전망이다. 우리는 이를 합리적 전략으로 판단한다. 1) 엡지 디스플레이가 과거 모델과 달리 기술적으로 곡률이 작아지게(R값이 커지게) 제작될 수 있어 엡지 디스플레이가 장착되는 경우에도 펜의 장착이 가능하고, 2) 엡지 디스플레이의 공급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었으며, 3) 마케팅측면에서 자원투입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하반기에도 가격쪽에 무게를 둔 전략을 더욱 강하게 구사할 전망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스펙보다는 가격쪽에 무게를 둔 전략을 더욱 강하게 구사할 전망이다. 특히 갤럭시노트7의 경우 기존 갤럭시S시리즈와 노트시리즈와 비교하면 흥채인식 이외에는 하드웨어적으로 큰 차별화전략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대신 소비자들 이 전작 대비 보완하기를 원하는 점을 적극 반영할 전망), 하반기에 출시될 모델들은 전반적으로 하드웨어적 변화보다는 가성비를 높이는 전략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저가 라인업 확대 전략도 여전히 보수적으로 운영할 전망

삼성전자의 플랫폼 전략에 따라 모델수의 확대는 여전히 보수적 관점에서 진행되는 중으로 추정된다. New A 시리즈는 A3/A5/A7/A9 Pro가 출시되었고, New J 시리즈는 J1 Mini/J1/J3/J5/J7이 출시되었다. 또한 중국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C 시리즈인 C5(5.2인치) 및 C7(5.7인치)도 출시되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저가 라인업 확대 전략은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200 이하의 저가모델에서 삼성전자는 한 자릿수 후반의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전망이다.

■ 가격 전략, 마케팅 전략, 라인업 전략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 전망

이러한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마케팅 전략, 라인업 전략 등을 감안하면 갤럭시S7의효과가 서서히 소멸됨에 따라 3Q16과 4Q16에 휴대폰 부문은 영업이익률이 점차 하락하겠지만 전년대비로는 영업이익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아이폰7의 출시 시점과 판매호조여부가 하반기 삼성전자 휴대폰 실적의 가장 큰 변수일 전망이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삼성전자의 구조적인 경쟁력 상승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6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대한항공(003490)

매수(유지)
목표가: 34,000원(하향)
종가(6/29): 26,000원

2Q16 Preview: 해운 불확실성에 가려진 호실적

■ 분기매출액 2년 만에 다시 증가세 전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2조 8,211억원, 1,781억원으로 추정한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 늘어나는 것이며, 영업이익은 대폭 흑자전환 하는 것이다(작년 2분기 영업손실 26억원). 우리가 추정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1,343억원)보다 32.6% 많다. 2분기 영업실적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분기 매출액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대한항공의 분기 매출액은 2014년 3분기부터 일곱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경쟁심화에 따른 운임인하, 유류할증료 하락, 화물수요 감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부터 다시 매출액이 늘어나는 배경은 화물수요 감소세가 둔화됐고, 여객수요가 비교적 고성장하고 있는데다, 국제선 여객 중심으로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항공운임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 영업이익 큰 폭으로 늘어나지만 영업외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1,781억원)는 2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이다. 좋은실적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저유가 때문이다. 2분기 유류비는 5,24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2,296억원(30.5%) 줄어드는 것이다. 영업이익이 급증하는데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는 영업외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1분기에 한진해운 출자지분 손상차손(2,580억원)과 영구채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1,100억원)을 인식했다. 2분기에 한진해운 주가가 하락한 부분을 반영해 약 970억원의 손상차손을 추가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원/달러 환율이 오른 영향으로 약 1,600억원의 외화환산손실을 반영해야 한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2분기에도 상당한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모습이다.

■ 한진해운 관련 불확실성 아직 남아있어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43,000원에서 34,000원으로 20.9% 하향조정한다. 영업이익 전망치는 바뀌지 않았는데, 한진해운 관련 손상차손 인식액을 반영해 목표주가 산정에 적용하는 BPS 추정치가 12.8% 감소한 것이 목표주가가 내려간 가장 큰 이유다. 하반기에는 작년의 메르스 기저효과까지 반영되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진해운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점이 여전히 부담이다. 한진해운 구조조정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은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한항공의 한진해운 추가 지원 가능성이 언제 사라질 지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11,910	395	(635)	(10,629)	NM	1,988	NM	9.2	1.3	(26.8)	-
2015A	11,545	883	(565)	(7,968)	NM	2,534	NM	6.7	0.9	(25.2)	-
2016F	11,856	1,123	(245)	(3,309)	NM	2,889	NM	6.1	0.9	(10.8)	-
2017F	12,547	1,105	236	3,192	NM	2,895	8.1	6.0	0.8	10.5	-
2018F	13,204	1,215	362	4,897	53.4	3,020	5.3	5.7	0.7	14.2	-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6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조철희(chulhee.cho@truefriend.com) ☎ 02-3276-6189

두산중공업(034020)

매수(유지)
목표가: 29,000원(유지)
종가(6/29): 21,300원

2Q16 Preview: 실적, 수주 모두 하반기가 더 좋다

■ 관리연결: 2분기 매출액은 기대에 다소 못 미침. 3분기부터 증가

두산중공업의 2분기 관리연결(본사 및 해외 발전자회사) 매출액은 1조 6,390억원, 영업이익은 1,040억원(영업이익률 6.4%)을 기록할 전망이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2.6% 줄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감소 효과로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소폭 늘어나는 것이다. 매출액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착공이 주민보상 합의 보상 문제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국내 원전 매출이 추가되는 하반기부터 전년대비 증가 할 전망이다.

■ 재무연결: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은 양호

재무연결 자회사(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두산엔진)들의 합산 실적은 전년대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2분기 자회사 합산 예상 영업이익은 1,521억원이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공작기계 사업부(2Q15 영업이익 425억원) 매각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4.4% 증가하는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에 단행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감소 효과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두산엔진도 전분기에 이어 소폭의 영업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

■ 예상 밖의 이란발 수주 까지... 하반기 수주 모멘텀 기대

2016년 수주목표는 11.4조원이고, 상반기 예상 수주액은 약 3조원이다. 수주가 내정된 국내 원전계약 2.1조원(신한울 3, 4호기)과 매년 일정량 반복되는 유지보수, 서비스, 중소 기자재 (recurring) 수주를 감안하면 올해 7조원의 수주는 확보해 둔 셈이다. 여기에 수의계약이거나 단독입찰 혹은 최저입찰로 참여 중인 프로젝트(남아공 CFB 1.1조원, 터키 1조원, 베트남 0.8조원 등)를 감안하면 전년도 수주액인 8.5조원보다 늘어날 것이다. 특히 이란 경제제재 해제로 연초 기대하지 않았던 수주들이 이란에서 추가되며 보너스 밸류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2,200억원 규모의 이란 담수플랜트를 최근 수주했고, 하반기에도 약 5,0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 수주를 추진 중이다.

■ 자회사 지원 우려 줄고, 배당 매력(배당수익률 4%) 커지고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9,000원(SOTP 적용)을 유지한다. 두산건설의 성공적인 BW발행과 두산메카텍 매각(DIP 홀딩스로)으로 자회사 재무 risk는 크게 완화됐다. 또한 최근 주가가 하락해 배당수익률은 4%(주당배당금 전년과 동일한 850원 가정)에 달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 속에 배당투자 유망주로 부각될 것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17,972	878	(95)	(1,082)	NM	1,449	NM	10.2	0.6	(2.0)	3.2
2015A	16,204	62	(1,039)	(10,631)	NM	648	NM	24.3	0.7	(25.2)	4.1
2016F	15,664	980	244	2,183	NM	1,496	9.8	10.1	0.7	6.5	4.0
2017F	16,705	1,045	240	1,998	(8.4)	1,541	10.7	9.0	0.6	6.1	4.0
2018F	17,816	1,114	284	2,368	18.5	1,617	9.0	8.3	0.6	6.9	4.0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6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6/24(금)	6/27(월)	6/28(화)	6/29(수)	6/30(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92.58	1,926.85	1,936.22	1,956.36	1,970.35	
	등락폭	9.88	1.61	9.37	20.14	13.99	
	등락종목	상승(상한)	448(3)	420(1)	614(2)	696(1)	495(0)
		하락(하한)	359(1)	400(0)	206(0)	140(0)	297(0)
	ADR	95.47	79.76	85.73	88.61	89.84	
	이격도	10 일	100.52	98.10	98.76	99.85	100.47
		20 일	100.50	97.30	97.85	98.94	99.68
	투자심리	40	50	60	70	80	
	거래량	(백만 주)	407	394	373	451	345
	거래대금	(십억 원)	4,136	5,176	4,453	4,865	5,004
코스닥	코스닥지수	688.18	648.12	659.3	669.88	675.09	
	등락폭	-0.37	0.96	11.18	10.58	5.21	
	등락종목	상승(상한)	552(6)	576(5)	962(3)	938(4)	709(6)
		하락(하한)	513(1)	495(1)	138(1)	153(1)	358(1)
	ADR	100.79	94.92	96.57	98.13	98.90	
	이격도	10 일	99.45	95.49	97.62	99.55	100.41
		20 일	99.09	93.95	95.80	97.54	98.48
	투자심리	40	30	40	40	50	
	거래량	(백만 주)	999	1008	1091	927	931
	거래대금	(십억원)	3,576	3,791	3,925	4,042	4,222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718.1	1,445.1	780.6	192.4	80.0	170.2	69.3	14.0	254.7	73.5
	매도	2,679.9	1,257.3	1,039.2	484.9	86.4	169.2	40.8	11.9	246.1	40.8
	순매수	38.2	187.8	-258.6	-292.5	-6.4	1.1	28.5	2.1	8.7	32.6
	6월 누계	-1,283.1	572.9	238.8	290.2	-256.7	-263.4	40.4	-147.7	576.1	471.4
	16년 누계	-3,488.9	3,426.7	-1,180.9	-810.1	2,081.9	-1,771.5	-805.0	-687.0	811.1	1,243.0
코스닥	매수	3,923.4	190.0	105.1	24.8	11.9	30.7	12.0	0.9	24.8	15.9
	매도	3,847.7	191.4	162.4	60.6	8.4	42.3	17.3	1.8	32.0	32.9
	순매수	75.7	-1.4	-57.3	-35.8	3.5	-11.7	-5.3	-0.9	-7.1	-16.9
	6월 누계	686.5	0.1	-416.7	-38.4	-12.0	-138.2	-127.6	-6.0	-94.5	-269.9
	16년 누계	3,194.4	215.1	-2,317.3	-281.3	-108.7	-705.2	-427.7	-111.4	-683.2	-1,092.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4,516	음식료	-5,203
운수장비	10,212	철강금속	-4,918
서비스업	9,455	미분류	-4,510
현대모비스	10,003	KT&G	-11,223
롯데케미칼	8,095	삼성생명	-5,268
삼성물산	5,230	삼성전자	-3,845
KODEX 200	4,940	고려아연	-3,829
현대차	4,240	CJ제일제당	-3,629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15,155	운수장비	-10,064
유통업	13,900	전기전자	-9,191
보험업	12,793	건설업	-6,942
SK하이닉스	12,144	삼성전자	-15,878
삼성물산	11,636	현대모비스	-5,982
삼성화재	8,380	LG디스플레이	-4,041
롯데케미칼	5,628	고려아연	-3,840
삼성생명	4,595	기아차	-3,387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4,516	음식료	-5,203
운수장비	10,212	철강금속	-4,918
서비스업	9,455	미분류	-4,510
현대모비스	10,003	KT&G	-11,223
롯데케미칼	8,095	삼성생명	-5,268
삼성물산	5,230	삼성전자	-3,845
KODEX 200	4,940	고려아연	-3,829
현대차	4,240	CJ제일제당	-3,629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15,155	운수장비	-10,064
유통업	13,900	전기전자	-9,191
보험업	12,793	건설업	-6,942
SK하이닉스	12,144	삼성전자	-15,878
삼성물산	11,636	현대모비스	-5,982
삼성화재	8,380	LG디스플레이	-4,041
롯데케미칼	5,628	고려아연	-3,840
삼성생명	4,595	기아차	-3,387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36,324	전기전자	-66,388
보험업	9,245	운수장비	-33,503
종이목재	65	기타금융업	-19,523
KODEX 레버리지	49,517	삼성전자	-71,701
KODEX 200	31,908	KT&G	-29,710
SK하이닉스	20,133	기아차	-14,811
롯데케미칼	15,331	KODEX 인버스	-11,813
삼성화재	9,529	현대차	-11,354
잇츠스킨	6,277	고려아연	-10,378
삼성생명	5,525	TIGER 200	-10,180
KCC	4,873	삼성물산	-9,120
한미약품	3,771	SK이노베이션	-8,777
NHN엔터테인먼트	3,708	LG전자	-7,925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13,887	운수장비	-52,167
유통업	24,157	보험업	-5,678
미분류	16,594	기계	-5,336
삼성전자	42,614	현대차	-29,175
KT&G	36,136	KODEX 200	-25,360
SK하이닉스	27,058	기아차	-14,207
LG디스플레이	24,175	현대모비스	-12,189
아모레퍼시픽	13,881	롯데케미칼	-10,797
고려아연	13,674	S-Oil	-8,683
삼성SDI	12,126	현대제철	-6,290
TIGER 200	10,690	삼성화재	-5,478
호텔신라	10,389	삼성물산	-5,116
우리온	8,302	하나금융지주	-4,99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202	도매 -1,565
반도체	865	오락,문화 -1,265
제약	798	연구,개발 -1,048
제이스텍	1,070	큐리언트 -2,391
케어젠	980	서부T&D -1,401
셀트리온	960	에스엠 -1,257
레고켐바이오	732	안국약품 -1,050
우리산업	730	인트론바이오 -807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1,996	디지털컨텐츠 -889
기계,장비	821	도매 -389
운송장비,부품	464	오락,문화 -265
레고켐바이오	1,185	덕산네오룩스 -1,268
젬백스	1,123	삼천리자전거 -522
SK머티리얼즈	1,029	컴투스 -491
코오롱생명과학	747	CJ E&M -427
CJ오쇼핑	598	와이솔 -41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249	화학 -787
디지털컨텐츠	169	의료,정밀기기 -70
통신서비스	81	반도체 -58
에이티젠	167	나노 -806
셀트리온	103	세코닉스 -60
게임빌	90	제넥신 -55
조이시티	85	이젠텍 -53
한국전자금	81	유진테크 -31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연구,개발	843	농업 -403
오락,문화	716	기계,장비 -291
제약	672	음식료,담배 -213
이엔에프테크놀로지	841	흥국에프엔비 -722
큐리언트	720	바이넥스 -44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684	농우바이오 -403
중앙백신	529	고영 -366
슈피겐코리아	516	컴투스 -318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2,150	연구,개발 -6,092
운송장비,부품	1,065	오락,문화 -3,990
전문기술	751	제약 -3,562
레고켐바이오	2,295	큐리언트 -4,354
SK머티리얼즈	1,573	에스엠 -4,259
제이스텍	1,341	카카오 -2,514
젬백스	1,268	제넥신 -1,952
서울반도체	1,245	덕산네오룩스 -1,705
우리산업	1,142	서부T&D -1,483
에스티	1,138	흥국에프엔비 -1,388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092	KG이니시스 -1,340
유진테크	1,064	CJ E&M -1,249
중앙백신	986	바이로메드 -1,225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12,562	미분류 -14,409
디지털컨텐츠	8,301	IT부품 -5,327
의료,정밀기기	6,161	운송장비,부품 -2,342
컴투스	7,087	뉴프라이드 -14,472
셀트리온	5,853	제넥신 -2,867
카카오	3,980	뉴트리바이오텍 -1,784
나이스정보통신	1,977	CJ E&M -1,556
케어젠	1,953	큐로컴 -1,302
메디톡스	1,681	대아티아이 -1,146
비아트론	1,657	보성파워텍 -1,008
바이넥스	1,553	엠씨넥스 -984
바텍	1,393	조아제약 -929
디오	1,337	제이스텍 -92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TIGER 원유선물(H)	36	일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18 일
한미약품	29	일	벽산 15 일
KPX케미칼	19	일	한국항공우주 12 일
삼화전기	15	일	한화테크윈 12 일
신영와코루	15	일	고려아연 11 일
대창	14	일	태영건설 11 일
삼정펠프	14	일	오리온 11 일
제주은행	14	일	한화 11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티비씨	32	일	하림홀딩스 20 일
아이원스	15	일	이크레더블 17 일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4	일	휴온스글로벌 13 일
SK머티리얼즈	14	일	로엔 11 일
제닉	13	일	하이록코리아 11 일
경남스틸	12	일	에스앤에스텍 10 일
현대드림4호스팩	11	일	아이센스 10 일
유비쿼스	11	일	삼영앰텍 10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143,928		고려아연 54,419
SK하이닉스	135,613		오리온 50,108
KODEX 200	104,376		KT&G 47,056
현대차	78,436		한국항공우주 43,776
KODEX 인버스	64,734		아모레퍼시픽 38,617
롯데케미칼	45,402		LG디스플레이 33,004
NAVER	40,141		호텔신라 24,012
현대모비스	39,718		SK하이닉스 23,921

KOSDAQ			
	기	관	외 국 인
SK머티리얼즈	7,623		카카오 24,016
이엔에프테크놀로지	6,261		컴투스 20,504
레고켐바이오	5,207		셀트리온 14,146
솔브레인	5,179		차바이오텍 5,572
매일유업	4,370		디오 5,181
셀트리온	4,182		AP시스템 4,984
한국정보통신	3,407		오스템임플란트 4,603
제이스텍	2,931		휴온스글로벌 4,571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미분류	36,324		16,594
종이목재	65		525
SK하이닉스	20,133		27,058
호텔신라	368		10,389
한미약품	3,771		4,528
엔씨소프트	3,107		4,176
코스맥스	3,285		1,747
삼성에스디에스	3,025		1,518
한샘	1,564		2,641
한국콜마	3,196		162
한국항공우주	1,028		1,840
SK텔레콤	142		2,573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반도체	2,150		3,461
전문기술	751		1,492
화학	707		885
레고켐바이오	2,295		874
메디톡스	518		1,681
서울반도체	1,245		932
에스티	1,138		540
젠탭스	1,268		68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092		125
이지바이오	564		605
삼천당제약	25		1,127
유진테크	1,064		19
주성엔지니어링	331		53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MH에탄올	20 일	유니온	41 일
삼영화학	20 일	코오롱머티리얼	28 일
두산엔진	18 일	다우인큐브	21 일
일진홀딩스	18 일	동일방직	20 일
모토닉	18 일	KPX케미칼	19 일
한양증권	18 일	화천기공	17 일
오리온	17 일	신세계건설	16 일
유엔젤	16 일	대상홀딩스	15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파인디지털	23 일	와이비엠넷	31 일
휴맥스홀딩스	20 일	신라에스지	31 일
파라다이스	16 일	CNH	25 일
MDS테크	10 일	유아이엘	22 일
원익홀딩스	10 일	대양전기공업	21 일
하이록코리아	10 일	서연전자	20 일
에스앤씨엔진그룹	9 일	경동제약	18 일
CJ E&M	9 일	양지사	1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181,822	삼성전자	-321,375
고려아연	-46,534	현대차	-139,472
KT&G	-30,734	KODEX 200	-106,237
삼성물산	-30,608	기아차	-58,872
오리온	-27,405	POSCO	-51,148
SK	-25,627	NAVER	-48,029
한샘	-20,483	현대모비스	-45,713
이마트	-19,431	롯데케미칼	-44,296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 E&M	-17,191	제넥신	-4,330
카카오	-13,916	엘컴텍	-4,069
에스엠	-8,217	솔브레인	-4,045
바이로메드	-6,994	유비쿼스	-3,125
KG이니시스	-6,500	서연전자	-2,833
한국토지신탁	-4,297	테스	-2,790
인트론바이오	-4,191	인바디	-2,533
큐리언트	-3,507	인터파크홀딩스	-2,166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33,503	-52,167	-85,670
기타금융업	-19,523	6,896	-12,627
철강금속	-11,412	2,655	-8,756
현대차	-11,354	-29,175	-40,529
기아차	-14,811	-14,207	-29,017
KODEX 인버스	-11,813	-4,757	-16,570
삼성물산	-9,120	-5,116	-14,236
현대모비스	-1,668	-12,189	-13,857
S-Oil	-2,991	-8,683	-11,674
KT	-7,842	-380	-8,222
하나금융지주	-3,199	-4,990	-8,189
OCI	-4,168	-2,703	-6,871
현대제철	-182	-6,290	-6,472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미분류	-69	-14,409	-14,478
연구,개발	-6,092	-824	-6,916
오락,문화	-3,990	-2,015	-6,006
에스엠	-4,259	-563	-4,822
제넥신	-1,952	-2,867	-4,819
큐리언트	-4,354	-297	-4,651
CJ E&M	-1,249	-1,556	-2,805
서부T&D	-1,483	-298	-1,781
원익홀딩스	-569	-878	-1,446
티씨케이	-812	-305	-1,117
에이티젠	-411	-654	-1,065
정다운	-994	0	-994
비트컴퓨터	-591	-391	-98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12	16,359	
아모레퍼시픽	17	7,311	
만도	29	6,345	
KODEX 200	200	4,865	
한샘	32	4,865	
SK하이닉스	121	3,867	
POSCO	19	3,811	
BGF리테일	17	3,735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메디투스	5	2,033	
한국토지신탁	481	1,820	
카카오	19	1,762	
동진세미켐	172	1,624	
바이로메드	10	1,449	
제넥신	23	1,366	
이지바이오	182	1,229	
대아티아이	412	1,05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582	5,000,522	
한미약품	1,694	1,214,878	
현대중공업	11,400	1,197,025	
KT&G	7,878	1,024,088	
NAVER	1,423	1,014,854	
호텔신라	13,969	930,319	
SK하이닉스	25,376	806,946	
LG전자	14,584	783,184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4,180	2,282,605	
카카오	12,690	1,170,046	
바이로메드	2,236	308,736	
로엔	2,902	207,799	
메디투스	456	196,439	
파라다이스	10,195	154,458	
씨젠	4,123	137,700	
이오테크닉스	1,336	129,87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통신업	2,784	기타금융업	-3,746
의료정밀	2,647	비금속	-2,215
의약품	2,132	은행	-2,168
LG유플러스	2,637	BNK금융지주	-3,641
미래산업	2,625	하나금융지주	-3,372
우리종금	2,084	우리은행	-2,472
한국전력	1,936	쌍용양회	-1,584
대우건설	1,597	한진해운	-1,569
LG전자	1,358	대우조선해양	-1,227
한솔제지	1,216	한온시스템	-1,205
SK증권	1,096	현대증권	-950
부광약품	1,073	SK하이닉스	-837
키스톤글로벌	921	한진중공업	-725

KOSDAQ			
	순 증		순 감
금융	6,221	소프트웨어	-739
제약	2,830	반도체	-513
디지털컨텐츠	258	오락,문화	-367
한국토지신탁	6,165	대아티아이	-888
차바이오텍	2,307	파라다이스	-513
CMG제약	391	성광벤드	-407
이화전기	240	파루	-373
피에스케이	226	유니테스트	-316
다날	201	큐로컴	-298
CJ E&M	192	셀트리온	-293
옵트론텍	189	카카오	-271
디오	175	에스코넥	-256
인터파크홀딩스	150	서울반도체	-23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6/24(금)	6/27(월)	6/28(화)	6/29(수)	6/30(목)
외국인	3,426.7	572.9	-510.5	-146.7	-239.3	-368.6	56.4	187.8
기관계	-1,180.9	238.8	295.8	55.3	408.2	154.2	-63.3	-258.6
(투신)	-1,771.5	-263.4	272.4	61.1	141.7	36.4	32.1	1.1
(연기금)	910.3	459.3	235.8	106.8	23.2	66.1	33.7	5.9
(은행)	-687.0	-147.7	-18.0	-12.4	-7.7	10.0	-10.0	2.1
(보험)	2,081.9	-256.7	0.3	4.4	3.3	-11.2	10.1	-6.4
개인	-3,488.9	-1,283.1	1.9	34.9	-216.4	167.5	-22.4	38.2
기타	1,243.0	471.4	212.8	56.5	47.5	46.9	29.4	32.6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6/23(목)	6/24(금)	6/27(월)	6/28(화)	6/29(수)
KOSPI	2,011.3	1,915.6	1,961.3	1,992.6	1,925.2	1,926.9	1,936.2	1,956.4
고객예탁금	14,211.8	15,842.5	22,695.6	22,774.2	23,865.1	24,932.2	25,852.0	24,718.3
(증감액)	-3,802.5	1,630.7	6,853.1	-685.7	1,245.4	1,067.1	919.8	-1,133.7
(회전율)	29.9	34.0	28.8	33.9	64.6	36.0	32.4	36.0
실질예탁금증감	-10,123.5	-2,003.0	7,687.7	-850.2	1,020.0	913.8	917.1	-1,372.9
신용잔고(KOSPI)	2,300.6	2,542.3	3,035.6	3,248.2	3,248.8	3,207.9	3,097.8	3,063.2
신용잔고(KOSDAQ)	1,893.2	2,537.5	3,491.2	3,939.6	3,948.4	3,918.3	3,731.6	3,671.6
미수금	92.9	117.6	151.0	103.5	108.1	122.0	206.7	222.3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6/23(목)	6/24(금)	6/27(월)	6/28(화)	6/29(수)
전체주식형	77,926	-2,910	-832	71	-72	168	185	-16
(ex.ETF)		-2,352	-923	-32	-48	63	41	13
국내주식형	59,812	-3,095	-672	67	-73	169	187	-2
(ex.ETF)		-2,530	-756	-35	-49	64	42	31
해외주식형	18,114	185	-161	4	1	-1	-2	-14
(ex.ETF)		178	-167	4	1	-1	-2	-19
주식혼합형	8,324	30	-8	1	21	4	-1	55
채권혼합형	30,453	-299	76	27	103	-1	15	-16
채권형	102,114	14,801	2,100	376	45	85	-113	299
MMF	111,484	17,392	-4,513	-2,986	-1,031	-1,231	-1,467	-69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6/24(금)	6/27(월)	6/28(화)	6/29(수)	6/30(목)
한국	2,975	495	-432	-125	-202	-315	49	163
대만	5,093	2,234	-198	-402	-43	52	196	-
인도	2,715	531	-127	-	-	-32	-	-
인도네시아	852	533	287	44	59	52	132	-
태국	842	327	-13	-22	-37	55	-8	-
남아공	18	3,506	876	280	155	280	161	-
필리핀	573	244	42	26	11	-3	8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5년말	6/24(금)	6/27(월)	6/28(화)	6/29(수)	6/30(목)
회사채 (AA-)	2.11	1.70	1.68	1.68	1.67	1.68
회사채 (BBB-)	8.06	7.75	7.73	7.75	7.73	7.74
국고채 (3년)	1.66	1.25	1.23	1.24	1.23	1.24
국고채 (5년)	1.81	1.30	1.28	1.30	1.28	1.29
국고채 (10년)	2.08	1.50	1.48	1.48	1.45	1.46
미 국채 (10년)	2.27	1.55	1.43	1.46	1.51	-
일 국채 (10년)	0.27	0.17	0.19	0.21	0.23	-
원/달러	1,172.50	1,179.90	1,182.2	1,171.3	1,160.2	1,151.8
원/100엔	972.63	1,151.91	1,158.67	1,145.74	1,130.14	1,122.94
엔/달러	120.55	102.43	102.03	102.23	102.66	102.57
달러/유로	1.09	1.11	1.10	1.10	1.11	1.11
DDR3 1Gb (1333MHz)	1.00	0.86	0.86	0.87	0.87	-
DDR3 2Gb (1333MHz)	1.13	1.0	1.01	1.04	1.07	-
NAND Flash 16Gb (MLC)	1.46	1.44	1.45	1.45	1.45	-
CRB 지수	176.81	188.68	187.56	191.54	194.63	-
LME 지수	2,217.9	2,301.7	2,290.5	2,343.8	2,359.9	-
BDI	478	609	616	627	640	-
유가 (WTI, 달러/배럴)	37.04	47.64	46.33	47.85	49.88	-
금 (달러/온스)	1,060.00	1,315.50	1,324.55	1,309.70	1,321.5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0	21	22	23	24
日> 5월 수출 YoY (-11.3%, -10.0%, -10.1%)	美> Yellen 연준의장 연설	美> 5월 기존주택매매(백만건) (5.53, 5.55, 5.45) Yellen 연준의장 연설	美> 5월 신규주택매매(천건) (551, 560, 586) Powell 연준이사 연설 유럽> 6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52.6, 51.4, 51.5) 독일> 6월 마켓 독일 제조업 PMI (54.4, 52.0, 52.1)	영국> Brexit 국민투표 美> 6월 미시건 소비자신뢰지수 (93.5, 94.1, 94.3) Kaplan 연준이사 연설
27	28	29	30	1
	美> 1분기 GDP QoQ (1.1%, 1.0%, 0.8%)		韓> 5월 광공업생산 YoY (4.3%, 0.3%, -2.6%)	韓> 6월 수출 (n/a, -11.0%, -6.0%) 6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8%, 0.8%) 美> 6월 ISM 제조업지수 (n/a, 51.0, 51.3) Bullard 연준이사 연설 中>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n/a, 49.2, 49.2) 6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n/a, 50.1, 50.1) 日>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5%, -0.3%)
4	5	6	7	8
日> 6월 본원통화 YoY	美> 5월 제조업수주 5월 내구재주문 유럽> 5월 소매판매 MoM	美> 6월 FOMC 의사록 공개 독일> 5월 공장수주 MoM	中> 6월 외환보유고 독일> 5월 산업생산 MoM	美> 6월 실업률 6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 6월 시간당 평균 임금 日> 5월 BOP 경상수지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